

교실에 핀 벚꽃

이바라기조선초중고급학교 교원
리혜선

우리 학교 운동장에
핀 벚꽃은
봄바람을 타고
벌써 다 졌어도

2층 교실에서는
여전히 만발한
연분홍 벚꽃들이
학생들을 기다린다

찾아올 그들을 그려보며
아롱다롱 색분필로
칠판에 넘치도록
피워놓은 벚꽃

이 불안한 나날이 다 지나고
학생들 공부를 할 때면
칠판에서 지워지는 벚꽃이여도

나는 그리운
학생들의 얼굴을 보는듯
혼자 교실에서 벚꽃을 보고
벚꽃은 학생들처럼 나를 바라보니
나는 속으로 벚꽃과 속삭여도 보네